

김해강의 동시 연구

최명표*

차례

1. 서론
2. 동심과 현실 사이의 시적 균형감각
3. 결론

1. 서론

김해강은 1920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향리에서 중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천주교종리원에서 주최하는 강습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는 이때 『천도교회월보』에 수필을 발표하였는바¹⁾, 그 뒤로 시작 활동에 뜻을 두었다. 그로부터 그는 60여년간 고향 전주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문단에 나올 무렵은 장시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만치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원주민들의 피폐한 삶이 심각했던 시기였다. 그런 판국에 서정을 읊거나 개별적 정

* 전주교육대학교, fool1222@chol.com

1) “내가 처음으로 써서 처음으로 발표해 본 글은 그때가 경신년이니, 기미운동이 이어나든 그 이듬해 봄인가 봄니다. 한창 천도교회로 울락불락한 청년들이 모아 들든 때이니, 나도 그때 시골 교회의 중망을 얻어 가지고 상경하여 그때 이돈화 씨로부터 교리 강습—인내천주의의 강석(講釋)—을 받든 때입니다. 그때 천도교회에서 다달이 발행하는 월보지에 실린 「전사(田畵)로부터 도회에」란 짚막한 수필이 글을 썼다는 첫 솜씨였든 듯싶습니다.”(김해강, 「설문」, 『별나라』, 1935. 1·2)

서를 시화하는 것은 시인의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처러 보였다. 무릇 시가 시대의 선두를 이끄는 문화적 전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시인은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여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무렵에 소위 단편서사시들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거나, 농민과 노동자의 일상적 삶에 배어 있는 식민지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고투했던 시인들의 몸부림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해강이 당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수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성장 배경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천도교를 신봉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단에서 운영하고 가친이 학감으로 재직하던 사립 창동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진학하였다. 고모부 최린의 집에서 기거하며 보성고보에 재학하던 중에, 그는 최남선을 비롯한 민족운동가들이 「독립선언서」를 자신의 책상에서 작성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그는 기미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일경에게 쫓겨 낙향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천도교청년회 전주지회를 이끌면서 지역사회의 변혁운동에 복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년운동가들과 합세하여 전라북도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하고, 동향의 시인 김창술 등과 전주시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며 문학과 사회운동을 병행하였다. 그러므로 김해강에게 시란 일차적으로 외세에 의해 강점된 식민지의 궁핍상을 포착하여 공론화하고, 자신과 식민지 원주민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삭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시와 운동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런 배경을 선이해하면, 김해강이 시작에 투신하게 된 이유와 식민지민들에게 친근감을 표한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나아가서 그가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관심을 표시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습작기부터 시를 쓰던 김해강이 『별나라』²⁾와 『신소년』³⁾에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한 것은

2) 『별나라』(발행인 안준식)는 1926년 6월 창간되어 1935년 1·2월호까지 발간된 카프 계열의 소년지였다. 이 잡지는 천도교 계열의 『어린이』나 기독교 계열의 『아이생활』과 달리, 철저히 무산소년들의 계급의식 고취와 민족해방 의지 고양을 목표로 발간되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총독부의 잦은 원고 압수조치에 시달렸고, 해

이채롭다. 그러나 그 무렵의 시인들은 지금과 달리 시와 동시의 장르 구별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라는 장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대상에 따라 화자와 내용을 조정하였다. 실제 김해강은 시와 시조는 물론 동시와 동요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는 국민학교의 교가를 작사해주느라 분망하였다.⁴⁾ 그런 전후사정을 헤아려 보면, 그가 프롤레타리아 학을 주창하는 잡지의 원고 청탁에 응한 것은 자연스럽다. 김해강이 두 잡지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편집동인들과의 친분에 힘입은 것이다. 그 잡지에는 김병호⁵⁾, 이구월, 양우정, 손풍산, 이주홍 등, 주로 경남 지역의 프롤레타리아 시인들이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대부분 현직 교사였다. 당시 김해강도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이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우의를 나누고 시대의 울분을 달랠 수 있었다. 그가 생전에 쓴 회고담이나 일기를 살펴보면, 그들과 사신을 교환하며 문학을 토론하던 문구가 남아 있어 민족의 현실에 분노하던 단심을 기릴 수 있다.⁶⁾

본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되지 않은 김해강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그가 시인이었기에 아동문학 작가에 소속되기는 어려웠을 터이나, 엄연히 작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하지 않는 것은 연구자의

방 후에 복간되었으나 주요 인물들이 월북하는 통에 중단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잡지는 산일되어 지금도 완본을 구하기 어렵다. 편집에는 박세영이 깊숙이 관여하였고, 임화·송영·박아지·윤기정 등은 작품으로 지원하였다.

- 3) 『신소년』(발행인 신명균)은 1923년 10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1934년 2월호로 중단되었다. 『어린이』에 이어 나온 잡지답게 경쟁하다가 계급주의 소년지로 성향을 바꾸었다. 이 잡지에는 정지용, 권환, 마해송, 연성흠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다. 나중에 잡지를 이주홍이 주재하면서 무산소년에 대한 비중을 늘리자, 경남 지역의 작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 4) 김해강의 작품들은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국학자료원, 2006)에 수록되어 있다.
- 5) 김해강은 김병호가 상처하자 시 「慰詞—동모 彈·炳昊에게」(『비판』, 1932. 9)를 발표하며 위로하였다.
- 6) “경남 진주와 통영의 여러 문우에게서도 자주 편지가 왔다. 8·15 해방 후 부산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손풍산, 교편을 잡으며 시를 썼던 엄홍섭, 통영에선 호를 늘샘이라고 불렀던 시인 탁상수, 구월이라는 호를 가지고 동시를 썼던 이석봉 등 과도 사신을 교환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고받았다.”(김해강, 『나의 문학 60년』, 『표현』, 1986. 5; 최명표 편, 앞의 책, 780~781쪽)

도리가 아니다. 연구자라면 모름지기 문학현상에 대한 광범한 주시와 분석으로 문학사의 결락을 메우려는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더욱이 그의 작품들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한 채 산일되어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열의 아동문학에 속한다는 점에서, 서둘러 논의의 장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카프 작가가 아니면서도 시적 성향면에서 친밀하였고,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인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냥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다. 지금도 프롤레타리아 계열의 아동문학을 소홀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나,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논의하는 김해강의 동시들은 시와 동시를 병행한 시인의 시관과 동시관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내기에 알맞은 터이다.

2. 동심과 현실 사이의 시적 균형감각

김해강은 192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시화한 시인이다. 그가 당대의 민중들이 겪고 있던 고난들을 수용하기에 앞장선 이유인즉, 그들의 삶이야말로 구체적 현실을 담보해주는 징표일뿐더러 “집단생활로부터 유리된 사회층에서 발생이 된 무지개 가튼 환상문학”⁷⁾을 거부하는 신념으로부터 발원하였다. 그가 배격하는 ‘환상문학’이 ‘집단생활로부터 유리된’ 관념적 경향을 일컫는 것이라면, 민중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시적 출발점부터 지향했던 바일 터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시는 ‘무지개’를 좇지 않고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집단 정서를 반영하느라 길어지는 추세를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이 무렵에 발표한 작품들이 비교적 장시에 속하게 된 것은, 바로 시단의 경향과 사회 현실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미독립만세운동이 끝난 뒤에, 식민지 사회는 다양한 요구를 분출하였다.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라는 위장전술로 맞섰으나, 사회의 각 부면에서 제기되는 민중들의 열망을 수렴하거나 억압하기에는

7) 김해강, 「자각과 의식 문제」, 『대중공론』, 1930. 10; 최명표 편, 앞의 책, 712쪽.

역부족이었다.

마침 사회주의가 이입되어 민족해방의 새로운 이념으로 가능성을 검토받게 되면서, 식민지는 정치적 이념의 대립장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역으로 일제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를 안겨주었고, 가혹한 탄압 국면을 조성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에 따라 해방운동전선은 일제에게 강경히 대항하거나 타협하는 택일의 기로에 노출되고 말았다. 그 무렵에 농민들은 대부분 일제에게 농지를 빼앗기고 도시 빈민층으로 재편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말하자면, 일제의 잘못된 식민 통치 전략은 마땅한 출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그 부작용을 식민지의 원주민들에게 전가하며 구성원 간의 대립과 이간에 골몰하였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민족 지도부의 내부 분열을 재촉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곤경에 몰려 있던 민중들에게는 취업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김해강의 작품은 이 시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봐요 우리누나— 공장에간 우리누나가
 좀 일은 작년이맘때— 면산에 눈도 녹기전 일은봄에요
 몸단장 어엿부게— 머리빗고 분칠하고 고혼웃넘고
 화려한 서울— 뿔서울로 돈벌너간다고
 마을안 큰아기— 다 큰 큰아기들째에 들어
 자동차 타구요— 줄々이 타구요 호강스럽게 떠나더니만……

글세 여봐요 우리누나— 공장에간 우리누나가
 『누나! 달흔 큰아기들 다-가도 누나만 가지마우
 나 누나 보구십으면 어찌라구 간다구면 그러우』
 자동차에 실린 누나의팔에 매달려 말성을 부릴때
 『돈 벌어가지고 곳 온단다 그래야 너도 공부를 해보지』
 이러케 나의등을 다독겨려 달내주고는 찌나드니만……

아아 어찌 알엇겟서요 우리누나— 공장에간 우리누나가
 반년도 못되어 낫지도못할 병에 걸려 돌아올줄을

『이애야 어찌자고 이러케 병들어왔느냐?
 내가 병들어 눕고말지 너 알른 싯을어찌 본단말이나?』
 이러케 늙으신 어머니 누나의손을 붓잡고 울부즈질때
 말업시 다문입 힘업시 쓰는 누나의눈엔 눈물이 팽 고엿드라우

하더니 이봐요 우리누나— 공장에간 우리누나가
 하루아침 스러지는 이슬처럼 어버이품을 썬나고말엇구려!
 오늘도 내 진달내꽃출짜서 누나뵈에 뿌려줄때
 어머니 어푸러지신채 짱을치며 우시는구려!
 아아 누나의 탄 자동차— 호강스럽게 쓰나든 그적이
 아죽도 눈에 선-하것만— 누나의얼굴 이젠 다시는 볼수업슬가요?

—「아아누나의얼굴다시볼수업슬가?」⁸⁾ 전문

이 작품은 시 「누나의 임종」(『대중공론』, 1930. 7)의 자매편이다. 김해강이 이 무렵에 나이 어린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표하게 된 동기는 일제에 의한 노동력 착취 상황에서 기인한다. 일제는 식민지의 주요 도시에 제사공장을 설립하고, 농촌의 어린 소녀들을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였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과도한 노동시간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제는 자국의 식민 자본이 어린 노동자들에게 고강도의 노동을 부과하고, 기본적 인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이다. 설사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이나 기숙사 시설의 개선과 같이 기본적인 요구에도 일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식민자본가의 편을 들어주었다. 한 예로 김해강이 살고 있던 전주에서는 임금 차별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항거하는 집회를 갖던 중에 경찰에 발각되어 강제로 해산되는 등,⁹⁾ 각지에서 어린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오죽하면 조선총독부조차 소년들의 노동력 착취를 사회적 현안과제로 인식하여 아동학대금지법의 제정을 검토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은 제출되었다. 김해강은 사실성을 확보하기

8) 『별나라』, 1930. 6.

9) 『조선일보』, 1930. 7. 4

위한 방편으로 서한체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¹⁰⁾ 이 방식은 근대문학의 초기에 이반 투르게네프의 산문시가 중복하여 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1920년대의 장시화 경향을 계승하면서 1930년을 전후로 이른바 단편서사시에 도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그 원인은 일제의 사상통제가 자심해지던 시대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한체는 서한의 특징적 요소를 차용하여 발화하는 고백체 답화 방식이다. 서한체는 나/너의 형식을 취한 듯하나, 속으로는 나/나의 형식이어서 은밀한 내면을 고백하기에 알맞다. 김해강은 부재하는 누나를 거꾸 호명함으로써, 소녀가장의 희생으로 근근이 꾸려지는 식민지 가정살림의 궁핍상을 강조한다. 이것이 그가 서한체를 취하게 된 이유이다. 그는 서한체 시가 지닌 강점을 이용하여 식민지의 가난한 살림과 가족해체현상을 문제 삼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거대한괴물가튼 식킴은기계”(「태양을 등진 무리」)의 정체가 폭로되고, 또 누나가 남동생에게 ‘돈 벌어가지고 곳 온단다 그래야 너도 공부를 해보지’라며 달래며 공장에 취직한 결과로 ‘반년도 못되어 낫지도못할 병’에 걸린 노동의 강도가 밝혀진다. 그것은 김해강이 가족내적 화자를 앞세워서 시의 분위기를 극적 상황으로 조성한 덕분이고, 그에 따라 이 작품은 “다소 추상적으로(로맨틱한) 흘리기 쉬운 난삽한 그것에서 구체적 서사시형을 취하여진 이번의 것은 조흔 경향을 보여준다”¹¹⁾는 고평을 받게 되었다.

더하여 이 작품의 독자는 요새 기준으로 아동보다는 청소년층이라고 볼만하다. 당시에는 아동이나 소년의 범주가 미처 확정되지 않았던 탓이다.¹²⁾ 아동과 소년의 범주 설정 문제는 문학뿐 아니라, 당시의 소년운동이나 청년운동계에도

10) 서한체시의 유형과 특성에 관해서는 최명표, 「일제하 서한체시 연구」, 『국어문학』 제42집, 국어문학회, 2007. 2, 67~95쪽 참조.

11) 김병호, 「최근 동요평」, 『음악과 시』, 1930. 6; 박경수 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4, 150쪽.

12) 1924년 4월 21일 출범한 조선청년총동맹은 회원의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고, 1928년 1월 5일 열린 조선소년연합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회원의 연령을 8세로부터 18세까지로 하고(8세부터 12세까지를 제1반, 13세부터 18세까지는 제2반), 18세 이상은 특별회원으로 하며 지도자는 특별회원 자격자 중에서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을 보면, 당시 운동권에서조차 ‘소년’과 ‘청년’의 연령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금 관습처럼 통용되는 아동문학의 범주를 재론할만한 증거로 삼기에도 충분하다.

민감한 문제였다. 후자처럼 식민지의 변혁운동에 종사하는 운동가들은 소년과 청년의 경계에 따라서 회원수나 조직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상위 운동에 속하는 청년회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소년의 연령을 결정하였다. 그와 같은 현실적 조건이 제약하면서 아동문학가들도 혼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보통학교 재학 연령도 취학 기회의 협소로 말미암아 과년한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구분법이 널리 통용되다 보니, 잡지사의 편집자들은 아동과 소년의 물리적 범주를 설정하느라 고심하였다. 그런 까닭에 아동과 소년의 범주 문제는 아동문학의 본격적인 형성을 저지한 원인으로 작용한 혐의도 인정된다. 앞서 거론한 김해강의 작품이 지금의 동시와 수준이 다른 이유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마을 밀때영감 우습고나야
부러지고 째썩이썩 밀때모자를
봄너름이 다지나고 가을이와도
바람치고 눈뿌려도 항상쓰지요

행길에만 내려가도 밀때모자요
방에안저 글을봐도 밀때모자쵸
더우면은 부채대신 째을개이고
삼잘때면 퇴침대신 베고자지요

그리고는 이말저말 돌아다니며
썩덕썩덕 일꾼들과 석겨놀지요
젊은일꾼 풀넙담배 부쳐들이면
돌무덕에 걸어앉져 이약한다나.

동네마을 터닥그면 노래먹이쵸.
『에엥에라 터를닥겨 조흔집짓자』
지심매고 씨뿌리면 노래먹이쵸.
『어리얼령 풍년들면 잘살어불가』

밀재영감 밀재영감 노래도잘해
 뒤팔흐며 놀려대도 성을안내죠
 썩그리는 얼굴한번 누가보았담
 수염몇개 뽑아줘도 웃고마는걸

뒤로살작 걸여가서 밀재모자를
 훌쩍< 벗겨노코 다라나도요
 에라요놈 한마디를 안하는영감
 작란꾼이 어린애들 동무랍니다.

그리해도 부자녀석 무서안코서
 동네< 대신하여 나선답니다.
 부자네집 삼살이에 쫓겨올면은
 밀재영감 돌을들고 개를쫓지요.

밀재영감 하루라도 업고보면은
 우리들은 심심해서 못견뎡다요
 밀재영감 우리마을 떠나고보면
 누가< 대신동무 되어준다.

—「밀재영감」¹³⁾ 전문

밀재영감은 동네아이들의 친구이다. 그는 일년 내 '째썩이썩 밀재모자'를 쓰고 다니며 온갖 동네일에 상관하지만, 아이들에게만은 한없이 너그럽다. 그는 아이들이 놀려먹거나, 밀재모자를 벗기며 장난치거나, 심지어 '수염몇개 뽑아줘도 웃고마는' 호인이다. 예전에는 어느 마을에나 이런 어른이 하나씩 있었다. 그는 대개 순진하고 착한 심성의 소유자로 아이들과 놀아주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그에게 '의지하며' 제힘으로 못 만드는 놀잇감을 만들어달라고 졸랐다.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묘파하느라 분주했던 김해강의 시편에서는 보기 힘들게 밝은 분위기가 눈에 띈다. 그것은 시인이 시와 동시의 차이점에 주

13) 『별나라』, 1930. 11.

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단서이고,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징후이다. 어느 시인들의 프롤레타리아 동시에서 산견되는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밀대영감’의 이야기를 취급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김해강의 동시에 대한 인식은 문학적이다. 이 점은 그를 프롤레타리아시인들과 구별되는 변별점일 터인데,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배려를 필요조건으로 내거는 동시의 본질에 가깝다.

이처럼 김해강은 동시의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고유한 정서를 포착하느라 고심하였다. 그의 시에서 생경한 이념이나 도식적인 계급의식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전부터 추종했던 현실지향적 성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시작 생활 동안 내내 “대중(하층계급)의 감정과 사상과 의지를 기조로 생활의 조직력을 강화코저 시대 의식에 가장 적합한 의식적인 창작 활동”¹⁴⁾을 견지하였다. 이런 시작 태도에 입각하여 작품을 발표하면서도, 동시의 특수한 자질을 존중하였다는 점에 그의 시관이 놓여 있다. 그의 태도는 대립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급박한 리듬을 추종하고, 갈등 양상을 고조화시키고자 성근 시어를 남용했던 프롤레타리아시인들과 비교된다. 이 점 때문에 카프 계열 비평가들은 내용상으로는 현실비판적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문학의 본질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김해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그를 가리켜 ‘동반자작가’¹⁵⁾나 ‘동반자적 경향파’¹⁶⁾로 분류한 것을 보더라도, 카프측의 문학관에 전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았다. 그로 인해 그는 카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문학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래에 인용하는 시편을 보면, 김해강과 카프 계열의 시인들의 작품이 다른 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성기< 눈 뿌리는 겨울날이였나이다
산스골 시내스물가에 홀로 안저 또당< 얼음을 깨이고 놀때였나이다

14) 김해강, 「대중의 감정을 기조로」, 『조선일보』, 1934. 1. 9; 최명표 편, 앞의 책, 716쪽.

15) 유수춘, 「조선현대문예사론」, 『조선일보』, 1933. 1. 1~5

16) 김팔봉, 「조선문학의 현재의 수준」, 『신동아』, 1934. 1

마을 밖 저편 언덕에
서있는 늙은 나무 가지와 가지에는
적은 새싹들이 팔작< 뛰며 한참 평화스럽게 놀고 잇섯나이다

아< 저 적은 새싹들의 평화로운 꿈이
금시로 깨어질줄을 누가 알었스리이까
텅—르르르렁……
곧썩을 울리는 한방의 총소리는
적은 가슴에 빨가케 뛰는 심장을 무참히도 깨트려버리고 말었나이다.

놀란 날개를 치며 제각기 흐터지는 적은 새 싹들—
그들의 한재는 강변 앙상한 덩굴로 날러들어
죽은듯 가슴을 독은거리며
눈알만이 초롱 초롱— 초롱을 휘둥굴리고 잇나이다.

이때었나이다
강변에 차너논 나의 적은 지게사발알엔
어린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적은 한머리의 어린새가 날러들었나이다
아< 얼마나 가여운 일이오리까
부러진 약한 다리를 바르< 썰며
몸을 겨누지 못하여 달과 쓸어진 그대로
날개만을 푸드덕거리니 무슨 큰 힘인들잇사오리까
다못 적은 입으로 흘러나오는 붉은피만이
돌<사이 모래알을 고이< 물들일뿐입니다

상처에 다침이 업도록 두손에 담속올려
날개를 펼치고 더운 입김을 불어주는 나의마음—
아< 나의손에 마즈막 짜근한 피를물들이며
영롱한 광채를 굴리든 것도 가장 썩본동안—
그대로 고요이 눈을 감어버리웁니다

적은 죽음을 못내 약기는 나의마음을 아는듯 하소하는듯
한결 평화로이 고요이 눈을 감어버리웁니다

오스 어머니새는 울리라 동무새는 울리라
숨어 놀란숨을 허덕이면서도 그들은 울리라
하나 나의손사바닥우에 살아지는
한개의적은 죽음을 누구 하나가 알리이까
길이 일어버리고 마는 이 적은 한개의 죽음을 그 누군가 알리이까

오스 적은 한개의 죽음이여!
너의죽음을 노래로써 조상하는 나의마음은 쫓는구나 압호구나
더운 눈물을 너의 시체우에 적시워주노니
놀란 혼을 고이 쉬이라 길이 쉬이라
(1932. 2)

—「적은 죽음을 노래로 불으는 吊詞」¹⁷⁾ 전문

위 작품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은 새의 죽음을 조의를 표한 것이다. 김해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새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포수에 의해 '적은 새새들의 평화로운 꿈'이 깨어진 전후를 포착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적은 죽음을 노래로 불으는 吊詞'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훼손당하는 광경을 안타까운 음조로 드러내었다. 그의 시 중에서는 "생명의 자유로움"(「봄비」)을 노래한 작품을 곧잘 찾아낼 수 있으니, 새 한 마리의 죽음에 눈물 흘린다는 과장이 아니다. 김해강이 이 시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게 된 까닭은, 당연히 일제에 의해 불임의 땅으로 변해버린 식민지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원주민들의 식량을 비롯하여 갖가지 물산들을 약탈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식민지의 곳곳에서는 유랑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도회지의 거리에는 부랑아들의 수효가 날로 늘어났다. 이런 시국에서는 그들의 비극적 현실을 폭로하여 민중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

17) 『별나라』, 1932. 4.

는 시편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시학의 본질적 국면을 존중하기에는 식민지의 사정이 너무나 궁핍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김해강은 현실 비판적 정서를 자주 다루었으면서도, 동시의 특유한 성질을 감안하여 인용시처럼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는 '적은 새제들이 팔작 췌며 한참평화스럽게 놀고 잇섯'던 강토가 '골짜기를 울리는 한방의 총소리'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땅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을 직접화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적은 죽음을 못내 악기는 나의 의미'에 의탁하여 일제의 야만적 통치방식을 은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에게 동시를 포함한 시는 예술의 영역일 뿐, 운동이나 투쟁의 수단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시는 "일제 강점하 이 땅의 궁핍한 상황을 날카롭게 묘사하면서도 예술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 프로시의 시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¹⁸⁾고 평가된다. 것처럼 '상황'과 '예술성'을 함께 추구한 그의 시관은 다음의 평문을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남의 그릇됨을 들추어내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면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한 개의 도움으로도 해석될 것이나, 다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도리어 그의 압길을 썩는 것이 되고, 또 그러함으로써 북도드러는 그의 의기를 닦쳐주고마는 험한 상착이를 치어준다는 자미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이 되고마는 폐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하면 「배격」하자, 자칫하면 「매장」, 이러한 글사자들은 될 수 잇스면 우리 소년문단에서 쓰지 안허야 할 것입니다. 꼭이 그러한 글사자들을 벌려 노아야 할 경우이면 막무가내 하지마는 그러한 글사자를 쓰게 됨에 쌀아 글 전체가 훼방 가치도 쏘는 비웃음으로 기우러지고마는 짚길로 벌기 쉬웁기 짜문입니다.¹⁹⁾

김해강은 '배격'이니 '매장'이라는 격한 어조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논지와 무관하게 '글 전체가 훼방 가치도 쏘는 비웃음으로 기우러지고마는' 부작용

18)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1, 136쪽.

19) 김해강, 「사랑하는 소년 동무들에게—우리는 좀 더 동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별나라』, 1932. 2·3.

을 염려하고 있다. 이 글은 김해강이 1932년 『별나라』 신년호에서 벌어진 이고월의 「회색적 작가를 배격하자」와 채몽소의 「이고월 군에게」라는 논전을 보고 발표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소년 문사간의 과격한 언사를 동원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말리고 있다. 그는 '남의 그릇됨을 들추어내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면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한 개의 도움으로도 해석될 것이나, 다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도리어 그의 압길을 썩는 것이 되고, 또 그러함으로써 복도드려는 그의 의기를 닦쳐주고마는 험한 상처이를 치어준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나이 어린 소년들이 논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는 태도를 꾸짖고 있다. 그가 기성 시인답게 온건하고 점잖은 투로 그들을 훈계하여 상호 대립을 지양하도록 권고한다. 그의 중재를 받아들인 덕분인지, 두 소년은 그 뒤에 언쟁을 중지하였다. 김해강은 '도움'이 '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쌍방간의 논쟁을 중재하고, 아울러 논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고 있는 셈이다.

그의 바람은 일제라는 침략자 앞에서 적진분열을 일으키는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 문사들이 교조적 언어의 구사에 몰두하여 문학을 수단화하는 자세를 학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그는 소년문사들에게 기성 시인들처럼 논쟁이나 식민지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열에 나서지 말고, 시대 상황으로부터 심정적 거리를 유지하여 후사를 도모하기를 바란 것이다. 당시 『별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카프 시인들이 무산계급 소년들에게 강렬한 투쟁의식을 고취하던 바와 비교하면, 김해강의 논리는 어른스러운 어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유난하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동시작품들에서 현실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삼갔으리라. 그 배후에는 동심을 "순정의 나라"(「동심」)라고 보았던 김해강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 아래에 든 작품을 보노라면, 김해강이 추구하는 동심과 동시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눈은 평평 내리옵는데
좁은 산길 눈 쌓이면요,

우리 언니 학교 간 언니
돌아올 때 발 묻히겠네.

눈은 평평 내리옵는데
돌아올 때 여복 추울까?
돌다리에 드복 썬 눈을
다 쓸어도 언넌 안 오네.

—「눈」²⁰⁾ 전문

1930년 1월에 쓴 김해강의 미발표작이다.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시를 발표하던 그답지 않게 서정적 경향이 농후하다. 그 당시에 발표되던 그의 시는 남성다운 웅건한 어조로 일관되어 있는데, 위 작품에서는 동시의 특성을 살려 언니의 귀가를 기다리는 동생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눈이 내리어 발이 묻힐 정도로 쌓이는 동안,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심정이 켜켜이 적층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폭설 속에서 빛나는 동심의 아름다운 표정을 '드복' 보여준다. 김해강은 형제간의 우애를 '순정'으로 보고, 눈이 내리는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순백의 동심이 돋보이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로서 그가 시와 동시를 겸행하면서도 동시의 독자적인 문법을 훼손하지 않은 줄 알 수 있다. 그는 카프측 시인들과의 교분에 따라 아동문학 운동에 힘을 보태면서도, 자신의 시적 신념을 굳게 지켰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해강의 시는 '동반자적'이라는 모호한 분류에 포획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세속적 명리를 구할 목적으로 대세를 추종하기보다는, 이상적 신념을 고수한 시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실제로 그는 전주 지역의 사회운동단체에 적을 두어 활동하면서도,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곧, 그는 민족 우선의 신념으로 변혁운동에 종사하거나 시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로 보면, 김해강이 동시의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한 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태도

20) 최명표 편, 앞의 책, 263쪽.

를 줄곧 견지하면서 시와 동시의 창작을 겸행하였다. 그는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가면서 시와 동시를 가르고, 작품의 어조와 분위기 등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시세계를 관류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그는 '태양'을 예찬하거나 '새날'을 열망하는 작품들을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시에서 김해강은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견디는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런 자세를 동시에서도 바꾸지 않았다. 아래의 예시 작품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례이다.

새해.
첫아침.
붉은해는
새날을
우리의앞에 가져옵니다.

노래를이져버린 가난한 집웅밑에
사라날 걱정만이 조심스레 떨리거늘
새해라 복을빌며

반가이 차저올이 뉘오리까.
차저올이 업삼기로
문고리를 걸어잠구고
구들우에 떨기만하오리까
슬퍼만하오리까.

아버지.
어머니.
형아.
아우야.
누의야.
차나 더우나,

좋으나 나지나,
말엽시 차저오다 말엽시 가버리는
—오죽 하나
—당신들의 친구, 그대들의 벗
붉은해는 잊지 않고, 오늘도 차저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반가운 얼굴로
부러진 창살을 더듬어 쥐고
그의 따스한손사길은
서리친 집웅을 만져줍니다.

어서들 들창을 열고 뛰어나와
그의 힘찬 두활개를 얹기소서.
그리하여 그가 가져다주는 새날을 받드소서.
붉은해를 멩에하여
우리의뜻은 해마다 커가오니.

아버지, 어머니
그에게 줄 첫아침의 약속을
당신들은 생각하섯습니까
형아, 아우야, 누의야,
그대들은
어서 그의가슴에 붉은약속을쏘아 보낼
세찬 활들을 억개에 메이고 나와 마지하시소.
—「새해마지—별나라소년들은 새해마지의 노래를 이렇게불르며커갑니다」²¹⁾ 전문

인용한 시작품에서 김해강은 '새날'을 향한 절대적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1927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 「새날의 기원」이었듯이, 그는 일제 강점기 내내 '새날의 기원'을 시작품에 담았다. 그는 대표작 「동방서곡

21) 『별나라』, 1935. 1·2.

』을 위시하여 “밤을쫓고새날을창조하려태양은쫓는다”는 「태양승천곡」 등에서 ‘태양’을 앞세워 ‘새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노래한 바 있다. 그의 낙관적 전망은 마땅히 암울한 식민지시대를 견디기 위한 심정적 서원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희망은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었다. 아이들은 비록 ‘노래를이저버린 가난한 지붕’ 아래서 태어난 탓에 딱딱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김해강은 그들이 “명일의 조선의 빛이 되리라는 강한 자신을 가지고 오로지 씩씩한 기개와 명량한 심법을 배워 나아가는 가장 슬기로운 학생”²²⁾으로 자라나기를 바랐다. 그런 열망이 위의 시에 반영되어 언표화된 것이다. 그가 『별나라』를 특징하여 ‘별나라소년들은 새해마지의 노래를 이렇게불르며커잡니다’라고 부제로 달았을지라도, 굳이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소년 독자들에게 ‘붉은약속’, 곧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원단을 맞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의 발언은 남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해강은 이 외에도 동화 「목단강 야화 (1-종)」(『별나라』, 1931. 4-9)와 수필 「서울로 간 동무에게」(『신소년』, 1935. 10·11)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해방 후에는 전라북도의 각급 학교에 교가를 지어주고, 국민학교의 운동회 노래²³⁾를 작사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그의 잃지 않은 동심을 엿볼 수 있는 증거이다. 아마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교직에 종사한 탓에 동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을 터이나, 세월이 흘러가는 도중에도 동심을 유지하려고 애쓴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그의 말대로 동심이 ‘순정’이라면, 그것은 서정을 시화하는 데 유효한 정서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식민지시대에 현실비판적 경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카프 시인들처럼 교조적이거나 투쟁적인 작품보다도 서정시를 발표한 이유이다. 이 점에서 그의 동시는 시와 정치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심은 김해강

22) 김해강, 「내가 지금 중학생이라면?」, 『학등』, 1936. 1; 최명표 편, 앞의 책, 716쪽.

23) 김해강이 전주사범학교에 재직하던 중에 동료 황덕철의 작곡으로 전북 도내 국민학교에 보급한 「응원가」는 다음과 같다. “모교의 영예를 한 몸에 모아/당당히 출전한 우리 선수들/날래고 씩씩함이 천하의 무적/승리를 자랑함도 오늘이로세/싸워라 싸워라 싸울대로 싸워라/(이겨라 이겨라 모든 힘을 다하여)/돌격 돌격 천하에 무적이다/우리 학교 선수들 우리 학교 선수들”(최명표 편, 앞의 책, 827쪽)

에게 식민 당국의 광포한 통치하에서 광복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 준 심리적 울타리였던 셈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강이 『별나라』와 『신소년』 등에 동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편집자들과의 친분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식민지의 울분을 토로하였고, 동일 직종에 종사한다는 신분상의 동질감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의 교분은 현실지향적 시인들의 변모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도이다. 그들은 해방 후에 대부분 향리에 거주하면서 지역 문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지금까지의 시사적 논의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시인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1930년대 동시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들이 지방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은 서울보다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고유의 시 생산에 진력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손을 댄 것으로 미루건대, 김해강 동시의 발굴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그는 등단 이래 강렬한 현실비판적 성향을 담은 시를 발표했으나, 동시는 동심을 바탕으로 썼다. 그는 동심을 일러 '순정의 나라'로 칭하고, 시와 달리 현실을 우회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덕분에 그의 동시들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카프측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견주어볼 때, 투쟁성보다는 서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궁핍한 식민지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에, 그는 동시의 대상성을 고려하고 형식적 특성을 살려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 태양 이미지의 출현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시작품에서 산건되는 이미지를 확장하여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 핵심어: 김해강, 동시, 동심, 순정의 나라, 태양 이미지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별나라』, 1930. 6; 1930. 11; 1931. 4-9; 1932. 2·3; 1932. 4; 1935. 1·2.

『신소년』, 1935. 10·11.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2. 단행본 및 논문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1.

김팔봉, 『조선문학의 현재의 수준』, 『신동아』, 1934. 1.

박경수 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4.

유수춘, 『조선현대문예사조론』, 『조선일보』, 1933. 1. 1~5.

최명표, 『일제하 서한체사 연구』, 『국어문학』 제42집, 국어문학회, 2007. 2, 67~95쪽.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Poems by Kim Hae-Gang

Choi Myoung-pyo

This paper is planned to discuss children's literary works by Kim Hae-gang, which have never been reviewed to date. Kim Hae-gang was a poet who had been active throughout his life since he began writing in 1920. Although he was a poet, he wrote children's poems expressing sorrow for the reality in which children of the colony lived. His works belonged to children's literature in the proletarian group, which haven't been discussed seriously as of yet. In this regard, he is a poet who enables us to confirm the early appearance of a Korean children's literature history.

Kim Hae-gang presented his children's poems mainly in 『Byeolnara』 and 『Sinsoonyeon』. He had close friendships with the editors of the magazines; thus, he exchanged letters while expressing resentments about colonial conditions. Also, he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by the medium of the sense of kinship in terms of their status in engaging in the same teaching job. He presented poems reflecting a strongly critical propensity concerning reality from the time he started his literary career; yet, he wrote children's poems based on the innocence of childhood. He named the innocence of childhood 'the nation of pure love', and adopted a strategy of detouring reality unlike other poems. Thanks to that, his children's poems were able to ensure lyricism compared to works by poets in the KAPF group, who personall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him. Instead of directly coping with the ordinary life of poor colonial reality, he considered the objectivity of

children's poems and tried to propose the hope of the future by fully utilizing formal characteristics. That was concretized primarily by the emergence of the image of the sun, and this stemmed from his faith in maintaining coherence in a topic through the extension of an image found here and there in poetic works.

- Key Words: Kim Hae-gang, children's poems, innocence of childhood, the nation of pure love, the image of the sun

* 이 논문은 2011년 7월 8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